

나무 향기가 나는 우리 집...생활 속으로 목공을 가져오다

구례목재문화체험장, '생활목공DIY 기초반' 수강생 모집 24일까지...생활 속 필요한 맞춤형 사이즈·디자인 제작

구례군은 목공 교육의 다채로운 경험과 재미를 더할 목공에 기능인 양성 교육인 '생활목공 DIY 기초반 6기 과정'을 개설하여 오는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나무를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맞춤형 사이즈

와 디자인으로 목제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설계를 포함한 기초이론과 장비 사용법 등을 구례목재문화체험장에서 교육하며,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기초반 6기 과정'은 오는 3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하며, 매주 수요일반과 토요일

반 총 2개 반에 12명을 모집한다. 두 개 반에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모집정원보다 신청이 많은 경우는 공개 추첨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교육 강좌'에 안내 중으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생활목공 DIY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목공을 통한 다양한 재미를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월 3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화순군은 군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19억 3000만 원을 확보해 449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42동의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

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일반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동(棟) 당 1000만 원, 일반가구는 잔여 사업물량 발생 시 동(棟) 당 300만 원까지이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 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 한도가 종전 동(棟) 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되어 그간 자부담금 발생으로 사업 신청을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사업' 공모 추진

5인 이상 공동체 '모樂모樂'·커뮤니티 공간 소유주·법인·단체 '들樂날樂'

나주시는 '2023년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모임, 커뮤니티 공간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 공익활동과 지역공동체를 발굴·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공모 분야는 주민 5인 이상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모樂모樂'(주민 5인 이상 공동체),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소유·임차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법인 대상의 '들樂날樂' 2개 분야다.

올해는 20개소 내외에서 총 사업비 6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 자격은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주민(공동체)에 한해 주어진다.

사전설명회는 3월 2일(오전 10시, 오후 7시),

3월 3일(오후 2시) 총 3회에 걸쳐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나주시 배매3길 19-3·4층)에서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우선번호(☎ 061-339-2632)에 인원수와 참석 일시를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시는 설명회 이후 사업계획컨설팅, 심사 절차를 거쳐 4월 초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공익,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을 위한 소모임, 커뮤니티 공간을 다양화,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며 "사전설명회 일정을 꼭 숙지해 지역공동체 마중물 일원으로 활동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곡성군, '기생충 감염검사' 무료로 검진 받으세요

곡성군이 오는 22일까지 곡성군민들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무료 검진을 진행한다.

검진 희망자는 곡성군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채변통을 받아 대변을 채취한 후 수령지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장내 기생충 양성자에게는 무료 투약과 기생충 예방 교육이 이뤄진다.

곡성군은 섬진강과 보성강 유역에 위치해 있어 간흡충, 장흡충 등 각종 기생충에 대한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군에서는 장내 기생충 감염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매년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지역 내 전 세대에 감염병 안내 소식지를 배부해 기생충 검진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다.

장내 기생충 질환은 주로 민물고기(참깨, 다슬기, 돌고기, 목개, 연어, 가재, 참굴 등) 생식을 통해 감염된다. 오염된 채소나 과

일, 물, 조리도구, 식기류(칼, 도마, 양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장내 기생충 질환 유행지역 3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섬진강 유역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6.8%로 가장 높았으며 21년 대비 0.9%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곡성군의 경우 지난해 1,025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성자 84명(8.2%), 간흡충 45명(4.39%), 장흡충 36명(3.5%), 기타 3명(0.2%)이 발견돼 전국 평균보다 감염률이 1.4% 높았다.

기생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끓는 물에 10초 이상 자주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곡성=양혜영 기자

담양군, 취약지역 유충 방제로 선제적 박멸 나서

담양군이 각종 감염병 매개체인 해충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유충 방제 작업에 나섰다. 군은 방역기동반 7팀 11명을 구성해 월동모기의 유충 시기인 2~4월 집중적으로 주요 서식처인 정화조와 공중화장실, 관방천 등 390개소에 모기 유충과 깔따구 등을 선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미생물 제제를 투입한다.

특히 동절기와 해빙기에는 모기 유충이 지하 하수구와 정화조 등 제한된 곳에 서식해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가능하고, 모기 유충 1마리를 없애면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모기유충 방제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모기 등을 미리 박멸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각 가정에서도 완벽한 유충방제를 위해 집 주변 생활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 등 주변 환경 정비도 함께해 건강한 담양을 만드는데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